



고재섭 강경솔라팜두 대표, 전북대 발전기금 기부

전북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한 고재섭 (주)강경솔라팜두 대표이사(사)라팜인 미래인재교육진흥원 회장이 후배들의 학업 지원에 써달라며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전북대는 지난 19일 고재섭 대표이사를 초청해 양오봉 총장 등 본부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갖고, 고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기부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고 대표는 그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전북대 동문으로서 지역 발전과 교육 불사에 앞장서 왔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 및 공동주택 개발 시행 사업을 이끔면서도 (사)미래인재교육진흥원을 통해 지역 교육 불사에도 헌신해왔다. 한편, 고재섭 대표는 전북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한 뒤 (주)굿브레드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는 (주)강경솔라팜두, (유)은연, (유)대승엔지니어링 등을 경영하고 있으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전주지역 교육분과위원회 부회장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눈오면 진창길 되는 마을 앞길 닦아줘… 군수 칭찬”

고창 상하 노부부, 이 대통령에 손편지 보내  
심덕섭 군수, 마을 앞길 확·포장 작업 추진  
도로 포장에 소원성취, 노부부 일상 큰 변화



“시방 경운기도 못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넓고 좋아졌음에 내 여한이 없당개요” 고창군 상하면 노부부(정남인·이민숙)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고창군수를 칭찬하는 손편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부부는 집안사정으로 정규학교도 못 마친 탓에 까막눈으로 평생을 살아왔었다. 그러던 중 한글을 배우면서 꺾꺾 놀러는 생애 첫 편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쓰게 됐다. 부부가 살고있는 상하면 용대마을 왕방골골은 좁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산 영광군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곳이다. 자연스럽게 행정의 관상에서도 멀어지다 보니 마을 앞길은 50여년전 시멘트포장 이후로 전혀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반백년의 세월 속에 시멘트포장이 벗겨지고 자갈과 흙이 드러나면서 비나 눈이 올 때면 진창길이 되곤 했다. 특히 경운기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비좁고 급경사진 길로 콤팩트이나 이앙기 등 요새 필수가 되어버린 농기계 작업은 염두도 못했다. 부부의 소원은 뜻밖에 심덕섭 고창군수의 방문으로

성취됐다. 심 군수는 2023년 봄 취임 초 행정경계지역 주민들을 살피기 위해 용대마을을 찾았고, 이들 부부와 마을주민들의 간곡한 민원을 듣게 되었다. 얼마 뒤 마을앞길 확·포장 작업이 결정되었고, 그해 겨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안전하고 넓어진 길은 사골 노부부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매일 오토바이로 읍내에 나가 판소리 교육을 받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며 손주들에게 용돈까지 줄 수 있게 됐다. 부부는 “수십년간 안된다고만 하던 일을 군수님이 직접 와서 해결해 주셨다며 꼭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택근 김제역전시장 상인회장, 도지사 표창

김제소방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20일 김제 역전시장의 화재 예방 환경 조성과 안전문화 확산에 헌신해온 장택근 상인회장에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약 9년 7개월 동안 김제 역전시장 상인회장으로 재직하며 시장 내 자율 소방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택근 상인회장은 상인 중심의 자율소방대를 조직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김제시와 협조해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초기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또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안전하기 좋은 날’로 운영하며 점포별 자율 점검을 독려하고 상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날 표창 수여식과 함께 김병철 대응예방과장은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 행동요령 안내 및 점포별 맞춤형 피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현장 안전컨설팅을 실시하며 내실을 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병원 성장환 역사, 학술대회 우수상

전북대학교병원 약제부 소속 성장환 약사가 최근 열린 한국병원약사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스위스 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성 약사는 노외의 다제 복용과 잠재적 부작용 약물 사용 현황 분석이라는 주제로 연구 내용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 약사는 병원 내 약물이상반응 평가 전담약사로서, 입원 중인 65세 이상 노인 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5종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다제 복용과 부적절한 약물 사용 비율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약 70%에 달하는 노인 환자가 잠재적 부작용 약물(PIM)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부 당뇨약과 진통제가 저혈당, 신장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 투약 중단 시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약사들이 환자의 처방을 미리 검토하고 중재하는 활동이 노인 환자의 약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 약물 안전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상근 기자

야생동물 보호… 전북환경청, 남원서 불법 사냥도구 수거

전북지방환경청이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 사냥도구 수거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21일 남원시 산내면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영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에 빈번해지는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방환경청을 비롯해 남원시청,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산과 들을 돌며 울무와 밧 등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하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했다. 또 과거 불법 영구가 발견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쓰레기를 정리하고,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전북환경청은 현재 불법 포획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영구를 발견하거나 밀렵 행위를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나 전북지방환경청,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밀렵이나 불법 거래로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인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불법 사냥도구를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밀렵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영구 수거와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야생동물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진안군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웃돕기 후원

진안군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윤인순)는 21일 진안군에 이웃돕기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진안군청 사회복지지킴이 공무원들의 모임인 진안군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기부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대환 사회복지과장과 진안군사회복지행정연구회 윤인순 회장이 참석해 “회원들이 지역 사회에 나눔 실천하겠다는 뜻을 모아 이번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협 정읍시지부,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

NH농협 정읍시지부가 정읍시의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정읍시는 21일 시청에서 이화수 시장과 NH농협 장길환 전북본부장과 김순기 정읍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갖고, 13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정읍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읍시지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이 이뤄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올 주요 사업 논의… 장수교육지원청, 행정실장 협의회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21일 관내 행정실장 19명과 교육청 업무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실장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행정실장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학교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26년도 주요 사업 및 행정 현안을 공유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신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서는 학교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행정업무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사 부족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었으며,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추영곤 교육장은 “행정실장 간 소통과 협력은 학교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교



육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학력신장과 책임교육 등 2026년 10대 핵심과제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마이삭농조조합법인, 진안군에 장학금기탁

마이삭농조조합법인(청년농업인 드론방재단)은 21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청년농업인들이 드론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병해충 방제와 농작업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마이삭농조조합법인은 드론을 활용해 방제·파종·생육관리 등 다양한 농작업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 농가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26년 산림지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업비 총 45억원을 투입해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재난 예방·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에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재난대응단을 포함한 총 36개 사업에 2026명을 1월 말까지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분야에는 △산림재난대응단(60명) △산림감시원(80명) △숲가꾸기 패트롤(4명) △양묘장꽃묘생산(4명) △산림서비스도우미(3명) △합파유지방정원 관리인(1명) 등이다. 특히 시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3대 산림재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대응단을 중점 운영할 계획이며,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사업 참여자들에게 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병행 실시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전문성 향상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전면 시행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2일부터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함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QR코드 인증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교체 또는 분실 시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동, 생활밀착형 주민 지원 안내문 설치

남원시 금동(동장 김봉례)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각종 주민 지원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11개 경로당에 주민 지원사업 안내문을 제작·설치한다. 이번 안내문은 생활·복지·돌봄·건강·교통·안전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정리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특히 어르신들을 포함한 주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큰 글씨와 쉬운 표현을 사용해 주민·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기초연금, 노인복지비 지원, 병의원서비스, 각종 예방접종, 시민안전보험,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등 일상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만 담았다. 또한 1월1기구 및 찾아가는 소통간담회와 연계해 사업별 상세 설명과 신규 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시흥동, 28일까지 경로당 47곳 순회 방문

김제시 시흥동 행정복지센터는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관내 경로당 47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새해인사를 드리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난방기·보일러 작동 여부와 바닥 난방 상태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보온의류 착용,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휴한기 한파 예방 행동 수칙 및 응급상황 대처 방법 등 안내, 보이스피싱 실제 피해사례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 유무를 확인하고, 만족도와 애로사항 등을 꼼꼼하게 파악해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